

## 소기업청, 한인 지원 나섰다



호해 실바-푸라스 소기업청 제2지역청장(서 있는 사람)이 8일 한·중 경제인 만남의 행사에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양영웅 인턴 기자

연방소기업청(SBA)이 한인과 중국인 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일 SBA와 소기업 지원 비영리기관 SCORE가 주최하고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중 경제인 만남의 행사에는 뉴욕·뉴저지를 포함하는 SBA 제2지역 호해 실바-푸라스 지역 청장을 비롯해 프라비나 라가반 SBA 뉴욕지부장, 엘리옷 메어버그 SCORE 뉴욕시지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실바-푸라스 청장은 “SBA는 소기업개발센터(SBDC), 여성비즈니스센터(WBC), 창업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SCORE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에 성공하는 소기업인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끈 서비스는 SCORE 프로그램. 지난해 말 뉴욕시에서 소수민족 언어로는 처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어버그 지부장은 “플러싱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타운으로 소수민족 언어 서비스 첫 시범지역으로 선택된 만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SCORE는 1964년 창립된 비영리기관으로 SBA와의 제휴를 통해 창업 또는 사업 성공 관련 카

운슬링 서비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국 364개 지부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있는 1만24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다.

메어버그 지부장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만큼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카운슬러로도 적극 활동해 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인 카운슬러는 이명석 상공회의소 정책위원장, 배지현 ‘진 이미지 컨설팅’ 대표, 이승원 ‘웨비오’ 대표 등 3명이다. 예약자(718-359-4222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718-359-4222

end\_of\_the\_skype\_highlighting)에 한해 매주 수~목요일 오후 2~5시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